

안녕하십니까?

자승입니다.

이번 겨울에는 눈이 자주 내리고 ‘수십 년만의 한파’가 찾아오는 등 추위도 만만치 않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. 감기로 고생하는 분, 눈 때문에 채소 재배시설이 무너져서 시름하는 농민들, 그렇게 힘든 겨울을 보내면서 고생을 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 한 마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여러분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전하셨으리라 믿습니다.

요즈음 산중의 절을 찾는 분들이 점차 많아진다고 합니다. 어떤 분은 ‘불보살님께 예불을 드리고 불법을 배우기 위하여, 또 다른 분은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인 사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려, 또는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래의 희망을 가꾸기 위하여’ ...

“깊은 산중의 절에는 무언가가 있어!”하고는 느끼는데, 막상 산사의 문화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 안에는 세속의 일상적인 삶과는 다른 가치로 채워져 있어서 궁금한 것도 많지만, 누구를 붙잡고 이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

우리 종단 스님들의 자격시험 책임자인 고시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지안스님이 『산사는 깊다』를 세상에 내놓은 데에는 대중들의 이런 답답함을 풀어주어야겠다는 소박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.

이 『산사는 깊다』에는 지안스님이 특별히 골라낸 ‘34 가지 절집 이야기’가 오롯이 담겨있습니다. 새벽 도량석과 함께 시작하여 취침까지 이어지는 산사의 일상과 출가에서 다비까지 건너가는 스님의 일생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풀어내줍니다.

이번에 보내드리는 이 책이 여러분과 가족들이 언제나 산사에 편안히 다가가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, 그래서 스스로 편안해지고 가족과 이웃에 나아가 온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‘화안(和顔) 행자’가 되시리라 기대합니다.

설은 새해의 희망을 이웃과 나누는 보시 실천의 날입니다.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만, 그래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맑고 향기로운 정토(淨土)세상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는 길이라고 여기고, 우리 종단에서도 이 길을 묵묵히 갈 것입니다.

여러분, 계사년 새해에도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멋진 세상을 만들어갑시다.

불기 2557(서기 2013) 설날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